

尹, 예천·공주·청주·익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복구·농작물 관리 안전 지시 복구비 국비 지원 각종 세제 혜택 피해 조사 기준 충족엔 추가 지경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윤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축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경북이 4곳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이 3곳, 충북과 전북 각 2곳, 세종시 등의 순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농림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복구하려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예년 집중호우 때보다 2주 정도 빠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한덕수 총리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호우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특별재난지역선포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지 사전에 준비를 시켰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는 조금 빨리 결정을 할 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도윤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제·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원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억~11억원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센터카함(SSBN-737)에 승함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재옥 "국회 수해 대응 법안 최우선 처리"

민주 요구 추경 편성엔 선 그어

국회의원 윤재옥 원내대표는 19일 "7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복구 등을 이유로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당장 7월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 관원법, 수자원공사법은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처 간에 이견이 있거나 아직까지 절차 진행 단계가 7월 국회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8월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는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필요한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아·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원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수해복구 여야정 TF' 구성에 대해서 "정부는 현장 조치라든지 여러가지 수해 복구로 겨를이 없으므로 필요하다면 여야가 만나서 수해 복구, 수해 방지 관련 법을 빨리 신속 처리하자"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장기적 대책을 여야가 같이 마련하는 데 논의가 필요하다면, 협의체 구성은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소금을 전면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한 것을 민주당이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윤 대통령 발언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며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것을 아껴서 재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과 내후년 예산 확정 때 그간 방만하게 집행했던 정치적 보소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북, 새벽에 SRBM 기습발사...美핵잠 입항·핵협의그룹 출범 반발

"동해발사 탄도미사일 2발 포착"

북한이 한미 간 새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며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우리 군은 새벽 3시 30분경부터 새벽 3시 46분경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550여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이에 대한 세부제

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평가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이날 "새벽 3시 35분과 새벽 3시 48분경 각각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며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12일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이후 일주일만이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전날 한미가 NCG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미 전략핵잠수함인

센터카함(SSBN-737)을 부산에 기항시키며 핵역제력을 과시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NGC는 한미가 대북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양국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대표로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NCG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또 NCG 출범에 맞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사거리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트라이던트-II D5' 20여기를 적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1만8천750t급) SSBN 센터카함이 부산에 입항했다. /연합뉴스

미군 병사 월북 파장...판문점 행사 잇단 취소

종교계·전학 프로그램 등 중단

미군 병사가 판문점 견학 중 월북한 사건의 여파로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던 행사가 잇따라 취소됐다.

19일 통일부와 종교계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판문점에서 진행될 계획이던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7대 중단 대표자 판문점 방문 행사'가 취소됐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7대 중단 지도자들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염원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유엔사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에 참여한 주한미군 소속 병사가 갑자기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유엔사가 외부 인원이 참가하는 각종 행사를 잠정 중단했다. 유엔사는 외부 인원의 판문점 진입이 불가하다고 통일부에 통보함에 따라 판문점 방문 행사가 열릴 수 없게 됐다고 종교지도자협의회는 전했다.

유엔사가 주관하는 판문점 JSA 견학 프로그램도 전면 중단됐다. 19일 오후로 잡혔던 유엔사의 내외신 취재진 대상 견학도 전날 취소됐다.

판문점 JSA 견학 프로그램은 주 4일, 1일 6회 가량 운영된다. 사전 신청과 신원조회 등 행정절차를 위해 유엔사와 통일부가 각각 외국인과 한국인 견학으로 나눠 운영한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월북한 병사는 트래비스 킹(23) 이등병이며 한국인과 시비가 붙어 수십 일간 구금된 후 미국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공황을 빠져나와 JSA 견학에 합류했다. 미 언론은 그가 치밀하게 월북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식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